

광주 서민·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1900호 공급

시도시공사, 5월까지 영구임대·행복주택 등 유형별 우산빛여울채 1인 가구 572만원 등 입주 조건 완화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사진)가 물가와 임대료 상승으로 주거 불안에 겪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유형별로 순차 공급한다.

이번 공급은 9개 단지 1900호 규모로 시민의 소득 수준과 여건에 맞는 주택을 적기에 안내 신청 기회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는 17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절차와 자격 요건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5월까지 이어지는 5단계 '공공임대주택 릴레이 공급' 타임라인을 발표했다.

이달에는 '영구임대주택'이 시민들을 찾아간다. 주목할 곳은 예비입주자 모집 미달 사태를 겪었던 광산구 '우산빛여울채 12형'이다. 공사는 이곳의 입주 문턱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에서 150% 이하로 대폭 완화했다. 세전 금액



기준으로 1인 가구는 572만45원, 2인 가구는 879만9405원, 3인 가구는 1225만2644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자격 완화

모집은 광주도시공사가 직접모집을 주관하며, 총 300호를 공급해 신청일로부터 약 6개월 이내에 신속한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호계층을 위한 기존 영구임대주택 정기 모집도 이달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1인 가구 266만9354원, 2인 가구 351만9762원, 3인 가구 408만4215원)인 일반 가구가 대상이다. 총자산 2억4500만원,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50년까지

3~5월 공공임대주택 모집 요약표

기간	임대주택 유형	임대단지	모집	대상	최장 거주 기간	접수처	가구별 월평균 소득(세전, 이하)			총자산	자동차 가액	
							1인	2인	3인			
3월	영구임대	우산12형(자적원화) 병촌·우산·금호·산정	300호	수급자/일반	50년	광주도시공사	150%	572만45원	879만9405원	1225만2644원	2억 4500만원	4542만원
						행정복지센터	50%	266만9354원	351만9762원	408만4215원		
4월	행복주택	광주 지역	300호	청년·고령자	20년	관리사무소	100%	457만6036원	645만2897원	816만8429원	3억 4500만원	
							120%	-	762만1615원	980만2115원		
5월	국민임대	신창·하남	200호	일반	30년	광주도시공사	70%	343만2027원	469만3016원	571만7900원		

자료제공=광주도시공사

시세의 30% 수준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다. 쌍촌·시영·금호·산정 영구임대 1000호가 대상이다.

본격적인 이사철인 4월에는 '매입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이 신청의 바통을 이어 받는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는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층이 기존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

해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소득 50%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보증금 300만~750만원, 월 임대료 약 4만 5000원~18만원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에서 거주 중인 긴급주거 대상자는 구청장 선정 시 즉시 입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의 활기찬 시작을 응원하는 도심지 내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청약 접수는 각단지(광주역·서림마을·다사로움)의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진행된다.

소득 기준은 계층에 따라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최대 120%까지 폭넓게 적용된다. 청년 및 고령자 1인 가구는 120% (457만6000원), 신혼부부 맞벌이는 120% (703만9000원) 이하일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총자산 3억4500만원, 자동차 가

액 4542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광주역 다사로움 기준 보증금 약 3000만~4200만원, 월 임대료 8만 1000원~20만 3000원에 최장 20년간 거주 보장된다.

5월에는 무주택 서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국민임대주택' 신청이 광주도시공사를 통해 진행된다.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1인 가구 343만2027원, 2인 가구 469만3016원, 3인 가구 571만7900원)이며, 총자산 3억4500만원,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인 세대가 대상이다. 신청지구 66형(20평형)은 보증금 2344만9000원에 월 13만7000원, 하남지구 79형(24평형)은 보증금 3758만8000

원, 월 25만7500원으로 책정돼 최장 30년까지 마음 편히 거주할 수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각 유형별 접수처가 행정복지센터(영구임대·매입임대), 광주도시공사(영구 자적원화·국민임대), 각 단지 관리사무소(행복주택) 등으로 각기 다른 만큼 신청 전 꼼꼼한 확인을 당부했다.

무엇보다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임대정보 알람서비스'를 사전 신청해두면, 정규 모집은 물론 각 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미달 시 진행되는 수시 모집 정보까지 휴대폰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어 청약 기회를 완벽하게 챙길 수 있다. 김승남 사장은 "3월부터 5월까지 총총하게 짜인 공공임대주택 타임라인을 통해 주거 불안을 겪는 시민들이 자신에게 꼭 맞는 보금자리를 제때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눈높이에서 정확한 주거 정보를 제공하고, 알람서비스와 같은 세심한 안내를 통해 단 한 명의 시민도 주거복지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광주도시공사가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서 막중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개인사업자 신용대출도 '비대면 갈아타기'

오늘부터 서비스...1조 이상 대환예상

개인사업자도 스마트폰으로 신용대출을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18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시행을 하루 앞두고 참여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해당 서비스가 시작되면 개인사업자는 신용대출 중 10억원 이하의 운전자 금대출을 스마트폰을 통해 새로운 대출

로 갈아탈 수 있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5개 대출비교플랫폼과 신한·국민·농협·광주·전북은행 등 13개 은행의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대출을 조회한 뒤 다른 은행의 사업자 신용대출 상품과 비교해 더 유리한 대출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이후 은행 앱이나 영업점을 통해 대출심사를 신청한다. 사업자증명 등

공통인증서 인증으로 확인되는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고, 매매 관련 계약서류 등은 촬영으로 비대면 제출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경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동 가능기간, 증액, 만기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하기로 했다. 신규 대출 취급 후 경과 기관과 관계없이 갈아탈 수 있고 증액 대환도 가능하다.

다만 순수 신용대출로 보기 어려운 중도금 대출, 기업간거래(B2B) 관련

대출,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이번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 등을 토대로 추정해볼 때 이번 서비스로 약 1조원 이상의 대출이 더 유리한 대출상품으로 이동할 것으로 추산했다.

온라인을 통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지난 2023년 신용대출을 시작으로 2024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이번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확대돼왔다.

지난해 말까지 약 42만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1인당 연간 169만원의 이자를 절감했다. 총 대출이동 규모는 22조8000억원, 이로 인한 평균 금리 인하 폭은 1.44%p로 집계됐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이 17일 도청 청약홍보실에서 전남수산물물류센터를 활용한 로코노미 외식상품 개발 및 홍보를 위한 전남도-풀무원푸드엔컬처-원도군과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완도 전북, 전국 휴게소로 간다

전남도-풀무원 협약...연 70억 소비시장 창출

전남도가 완도 전북 소비 확대를 위해 대형 외식 유통망과 손을 잡았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 판로 확보가 본격화되면서 잠재된 전북 시장 회복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전남도는 17일 도청 청약홍보실에서 완도군, ㈜풀무원푸드엔컬처와 '휴게소 특화 메뉴 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범우 완도부군수, 김경순 풀무원푸드엔컬처 부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완물 중심 소비 구조에서 벗어나 외식·가공 중심으로 소비 형태를 확장하고, 전국 단위 유통망을 통해 전북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이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와 완도군은 전북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을 맡고, 풀무원푸드엔컬처는 고속도로 휴게소 특화 메뉴 개발과 판매를 추진한다.

신메뉴 홍보와 마케팅도 공동으로 진행해 전남산 수산물의 소비 저변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풀무원푸드엔컬처는 전국 241개 휴게소 가운데 27개소를 직영 운영하고 있는 업계 2위 사업자로, 대규모 소비시장 확보가 가능한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약 70억 14억원 규모의 전북 소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메뉴는 전북돼드엔컬처 부사장이 참석했다.

이범우 완도부군수, 김경순 풀무원푸드엔컬처의 공학·리조트·호텔 등 외식업과 산업체·병원·군부대 위탁급식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해 전북을 비롯한 전남 수산물의 소비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전남도는 전북 소비 촉진을 위해 다음 달 ㈜우뚜기와 협약을 체결하고, 완도 전복을 활용한 국산 전복죽 제품 출시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상호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심협력 현장경영

농협 광주본부부는 17일 서창농협에서 '동심협력 현장경영'을 실시했다. 이날 서창농협 본점과 지점 여·수신 팀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금융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농협 광주본부, 서창농협서 '동심협력 현장경영'

상호금융 사업현황 점검·맞춤형 경영지원 강화

농협 광주본부부는 17일 서창농협에서 '동심협력(同心協力) 현장경영'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경영은 금리 변동성과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역농협 상호금융 사업 방향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서창농협 본점과 지점 여·수신 팀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금융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상호금융 사업 실적과 손익 추이, 예수금·대출금 구조,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특히 금리 변동성 확대에 따른 여·수신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연체채권 관리

강화와 비이자이익 확대 등 상호금융의 안정적 운영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눴다. 또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현장 지원 중심의 소통도 이어졌다.

이철호 농협 광주본부장은 "상호금융은 지역농협 경영의 핵심 기반이자 지역 사회 금융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현장 중심의 경영 지원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금융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과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 광주본부부는 이날을 시작으로 앞으로 두 달간 관내 지역농협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상호금융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경영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촌관광 가는 주간' 확대... '웰촌'서 할인 이벤트

여행상품 할인·스타마을 스탬프투어 등 참여형 프로그램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농촌관광 가는 주간'이 연중으로 확대됨에 따라 매일 농촌관광 종합포털 웰촌(www.welchon.com)을 통해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시범 운영된 '농촌관광 가는 주간'은 489개 관광상품 할인과 연계 이벤트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올해는 매일 둘째 주마다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부담 없는 여행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웰촌'에서는 계절에 맞춰 매일 새로운 추천 여행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달에는 봄맞이 나들이에 좋은 농촌 테마 여행지 6개소를 선정해 안내하고, 투표 이

벤트를 진행해 추천으로 상품을 증정하고 있다.

4월부터는 농촌 체험·속박 온라인 상품을 최대 30% 할인에 제공하고, 농촌위계 이선 상품도 1일 최대 5만원 할인을 지원한다.

5월에는 농촌관광 상품과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결합한 '농촌투어패스'를 30% 할인된 가격으로 선보이며, 6월에는 '농촌크리에이티브' 여행상품을 최대 50%까지 할인한다.

대국민 참여 이벤트도 병행한다. 이달부터 20개 '스타마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스탬프 투어를 운영하며,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등 총 7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나주=조현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관세청·금융원, 해외서 카드 통한 자금세탁 차단

관세청이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신용·체크카드의 해외 사용을 막은 초국가범죄 자금 차단에 나선다.

관세청은 17일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국내 카드사 9곳과 신용·체크카드 해외 사용을 통한 자금세탁과 환치기, 범죄 자금 반출입 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국내 신용·체크카드 해외 사용이 자금세탁과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범죄 등과 결합하는 사례가 늘면서 민관이 위험 정보를 공유하고 감시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관세청과 카드사가 각각 보유한 정보가 분리돼 있어 이상 금융거래 대응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협약으로 출입국 정보와 해외 결제 정보를 연계하면서 범죄 자금 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해외 카드 사용 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 분석해 이상 금융거래 위험 동향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한다. 금융원은 이를 토대로 카드사가 이용 차단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실무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을 지도·관리한다.

연합뉴스